



인물탐방 종로전기(주) 박동천 대표이사

## 베푸는 삶이 행복한 인생

‘종로전기(주)’ 박동천 대표이사의 평소 이웃사랑 실천이 주변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대연5동 동천고 길에 위치한 ‘종로전기(주)’는 전기, 소방, 통신 공사업이 주업종인 전문건설업체이다. 이 회사 박 대표는 장립 이래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회사 창립기념일에는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직원 자녀 등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할원생 돕기, 수재민 돕기, 노인 식사 무료 제공 및 초등학교와 대학 등 모교의 장학 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특히 2000년 IMF를 겪은 상황에서도 소년소녀가장 504명에게 2천만원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금까지 3억 이상을 사회기금으로 기부해왔다. 불우이웃돕기 공로로 부산시장에게 감사장을 받았다.

회사 직원들도 하계농촌봉사활동에 동참해 주력 행동과 콘센트를 무료교체 해왔다. 94년 광복라이온스클럽 회장 재직시에는 을숙도와 자성대공원 등 자연보호 환경 가꾸기 행사를 펼쳤다.

### 피파 먹던 기억이 이웃돕는 계기

박 대표가 이웃돕기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청소년기에 어려움을 겪은 배경이 깔렸다. 그는 1956년생으로 경남 합천 쌍책면 상로리에 서 농사를 짓던 부모님 사이 2남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당시 그의 부모는 33,000㎡가 넘는 땅을 소유한 부농이었지만, 면사무소에 등기하지 않아 민사재판에 휘말리게 되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하였고 정신적 고초는 물론 힘든 생활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박동천 종로전기(주) 대표이사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금까지 3억이 넘는 기금을 내놓으며 더불어 함께 살자는 사회 만들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의 가족은 양식이 부족해 들만에 흔한 ‘괴’로 지은 ‘피파’를 먹은 적도 많았다고 한다. 그때 그는 훗날 반드시 사업을 하여 ‘꼭 성공하겠다’라는 집념을 다졌고, 힘든 사람을 돕겠다는 결심도 굳혔다고 했다. 가족들이 이주해온 김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그는 어렵 때부터 관심이 많았던 전기관련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 후 이론과 실기를 겸비해야겠다는 일념으로 1979년과 1980년에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공사 기능사 1급과 기사 2급을 취득하였으며 현재 전기공사 특급기술자 자격증 등을 보유하고 있다.

1984년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다닌 ‘창원기능대학’ 야간부 전기과를 1기로 졸업하고,

그 해 12월24일, 부산진구 부전동에 회사법인 종로전기(주)를 설립하게 된다. 그가 전기 사업에 뜻을 두게 된 이유는 자격증만 있으면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박 대표는 ‘신뢰, 정성, 미래’의 사훈을 바탕으로 이윤을 떠나 성실하게 내집을 짓는다는 정성으로 안전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 기업신용평가등급 A- 업체 키워

5,1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첫발을 내디딘 종로전기(주)는 현재 일용직을 포함한 400여 명 직원의 노력으로 수급한도액이 428억에 이르렀고 해마다 성장하고 있다. 또한 2009년 한국기업평가의 경영상태 조사결과 기업신용평가등급 A-를 인정받았으며 전국 12,000여 개 동일 사업체 중 80위 등급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금까지 광안대교 및 해운대 경관조명공사, 부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기공사, 아파트 50,000세대 이상 전기공사를 시행해 왔다. 최근에는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지까지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그동안 베푼 선행과 회사의 공헌으로 2002년 대통령 표창장을 비롯해 내부부장관과 통상산업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의 표창장, 부산시장상 등을 받았으며, 2006년에는 남구청으로부터 자랑스러운 구민상 애환상을 받았다. 그는 2006.1~2008.1월까지 3년간 한국전기공사 부산지회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는 한국전기공사 본부이사로 재직중이다. 남구문화원 감사로도 수행하고 있다.

그는 부인 최희미(53)씨와의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박 대표는 27세라는 비교적 이

른 나이에 결혼했는데, 혼자 사업을 하려면 기본 경장경비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직장생활 초기부터 부모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5분 일찍, 5분 늦게’라는 다짐으로 생활에 임하며, 자녀에게도 ‘항상 손해 보고 선행을 베풀어라’고 가르친다. 또 자녀들이 방학을 맞으면 현장에 투입시켜 스스로 용돈을 벌고 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물질보다 강한 정신을 물려주고픈 그의 철학이 담긴 까닭이다.

물론 사업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가장 힘들 때는 IMF 당시 위기를 맞은 일이었다. 하지만 오래 생각하면 건강까지 잃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 자리에서 잊고 재도전을 위해 일어섰다고 한다. 지금도 위기를 맞은 주변인들에게 “내가 막힌 어려움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라. 이것도 내 운명이라 여기고 오히려 실패를 삼가길 전의 기회로 받아들여라”라고 충고한다.

### UN참전기념탑 경관조명 설치 지원도

최근에 박 대표는 6천만원을 들여 UN참전기념탑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남구청에 기부해 냈다. 그가 UN탑 경관조명을 결심하게 된 이유는 4월 동안 400만 관객이 찾고 있는 프랑스 리옹시의 ‘빛의 축제’ 영향이다. 이에 박 대표는 남구의 상징인 UN탑 경관조명으로, 관광객들이 거쳐 가는 남구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 변화할 수 있게 되길 기대했다.

앞으로 그는 “우선 경제인으로서 회사의 등급 순위를 올려 동일 업체 전국 40위 목표에 부산 1위 사업체로 성장시키고 싶다”며 “힘들 때는 대까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지역발전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한정 배전 공사 시에 차란소음을 일으켜서 죄송하다. 하지만 전기공사는 긴급을 요하는 것인만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는 말로 양해를 구했다.

김정화 기자

## 축하합니다

### 보육인 최초 국민 포장 수상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앞장  
대연어린이집 주효진 원장



주효진 대연어린이집 원장이 지난 18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 한마음 보육인대회에서 보육인으로서의 처음으로 국민 포장을 받았다. 주 원장은 보육시설 환경과 보육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포장을 수상했다.

주 원장은 83년부터 대연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교육철학을 갖고 새마을 유아원시설 열악한 환경을 개·보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보육시설환경을 개선해 오고 있다.

그는 또 우수보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활동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 성과를 거뒀다. 지역봉사활동에도 적극 나서 2007년 4월 사랑의 동전모으기 행사를 벌여 기아대책위에

6,500만원을 전달했다. 주 원장은 지난 96년부터 한국보육시설 국공립 분과 회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보육시설 연합회의 발전과 보육인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부산시 보육시설 연합회장 전국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는 유아교육법 반대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해 사활까지 하는 투혼을 발휘해 보육계의 대모로 불리우고 있다.

### 제11회 설송문학상 받아

건강하고 탄력있는 시 쓰고 있는  
대연5동 주순보 시인



지난달 30일 부산여대 다촌문화관에서 시행된 제11회 설송문학상 시상식에서, 남구문인협회 주순보(대연5동·52) 시인이 우수상을 받았다.

김용태 시인은 심사평에서 “시인의 자연을 향한 순수한 감성이 서정적 생태의식에 부합하며, 시적 발상에 진정성과 긴장감이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수상 소감으로 “노스해진 시작의 행보에 박차를 가하라는 무언의 책정으로 생각한다”며 “보다 건강하고 탄력 있는 시를 쓰겠다”고 밝혔다.

주 시인은 1988년 월간 <한국시>로 등단했으며 부산시인협회 간사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남구문인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시집으로 ‘꽃씨는 겨울을 생각한 다(동림출판사)’가 있으며 2005년 제12회 전국예술인대회 시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경남 거제가 고향인 주 시인은 8남매 중 현재 3남매가 부산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어 더욱 이채롭다. 큰오빠 주영욱씨는 서예가 및 문인화 작가로, 둘째오빠 주철민씨도 사진작가로 남구문화원 강의를 맡고 있다. 김정화 기자

### ■보람에 산다 -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성범죄 학교폭력 뿌리뽑는다

전국 경찰서 베스트팀에 선발  
유해사범·업소 줄어든 때 ‘보람’

성범죄와 청소년 범죄 예방·근절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가 경찰청이 실시한 최근 평가에서 전국 여성청소년 베스트팀에 선발됐다. 김민수 순경은 1등급 특진했다.

이번 선발은 지난해 2·3·4분기 와 올해 2분기에 이은 다섯 번째로 전국 최고의 부서로 선정, 남부경찰서가 민생침해 범죄 소탕 60일 작전에서 전국 1급지 경찰서 중 1위를 차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은 최고의 수사력과 팀워크로 성매매사범과 학교폭력 등 청소년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올 한해에만 66개 불법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와 관련 종업원 등 191명을 형사입건하고 21명의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법적 조치

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는 김동국 계장을 중심으로 7명의 팀원들이 어려운 단속환경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에 가능했다.

때로는 차안에서 잠잠을 설치하며 잠복근무를 하고 손님으로 가 장해 영업장을 드나들며 수사에 나섰지만 결코 녹록치 않은 일이었다. 공들인 수사가 하루아침에 물거품 돼 허탈할 때도 많았다. 그럴수록 팀원들은 특유의 끈기와 집중력으로 범죄소탕에 전력해 유해업소를 하나 줄여나가는

데 성공했다. 김동국 계장은 “베스트팀으로 잇달아 선정된 데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단속에 일해준 팀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청소년범죄 예방과 근절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최고의 부서로 선발된 남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 조상영씨 행안부 장관상 받아

안영옥씨 검찰총장상, 박성희·김영미씨 시민사회복지사상

남구지역 각급 단체장과 단체원이 잇달아 기관장 표창을 받아 남구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다.

조상영 바르게살기운동부산광역시 남구협의회 사무국장은 지난달 21일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밝고 건강한 국가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으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받았다.

조상영씨는 협의회 사무국장으로서 활동하며 각종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과 회원들의 단합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연6동 안영옥씨는 최근 검찰총장 표창을 받았다. 안영옥씨는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부산남구협의회 보호관찰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비행청소년 선도보호와 보호관찰 등에 나서며 범죄예방활동과 범죄사 바로 세우기 운동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다.

박성희 대한사회복지회 사랑샘 원장은 지난 10일 열린 제4회 시민사회복지사상 전달식에서 시민사회복지사상을 수상했다.



조상영씨



안영옥씨



박성희씨



김영미씨

지사상을 받았다. 박 원장은 지역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돼 이번엔 상을 받게 됐다. 문현 4동에 근무하는 김영미씨도 이날 같은 공로로 시민사회복지사상을 수상했다.

### 컴퓨터 교육 특강 개강: 2009년 12월 1일

특강 ①	수강료: 6만원 매주 화요일~금요일 10:00~11:50 (10명)	초보자의 마우스 사용 확실하게 익히기 프로그램 이해하기: 윈도우,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창과 키보드 이해하기, 키보드와 마우스와 함께 사용 폴더 및 파일 이해하기, 디스크관리 이해하기 등
특강 ②	수강료: 6만원 매주 화요일~금요일 11:10~12:00 (10명)	컴퓨터를 실용적으로 사용하기 인터넷과 이메일, 그림편집, 사진/음악: 동영상만들기 압축/압축풀기, 화면캡처, CD/USB/디키이류, CD굽기 등
국비·노도부		
과 정 명	개강예정일	교육시간(월~금)
전산응용조선제도 및 선체설계	2010년 1월 11일	(38일) 16:00~18:00 (월~금, 주5일)
CAD설부	2010년 1월 11일	(38일) 13:30~15:30 (월~금, 주5일)
사무직전문과과정	2010년 1월 11일	(38일) 13:00~15:00 (월~금, 주5일)

청년, 일반실업자, 주부 취업을 원하시는 분(교통비 월 5만원 지급, 개강 13일 전에 신청)

대연부경정보처리학원 ☎ 622-7296  
지하철 경성대역 6번출구, CGV(영화관) 옆, 베이직하우스 8층

## 대호레포즈 회원모집 합니다

수영·헬스·에어로빅·아쿠아로빅  
(수시모집)

※ 초등학생 수영회원 모집, 겨울맞이 전 종목 대폭 할인 행사

위치: 유엔로터리에서 외국어대학 방향 150m 지점

☎ 627-0027~8

### 단전 호흡, 기체 조, 명상 국선도

우리의 몸이 국선도를 필요로 할 때

- 항상 초조하고, 불안하며 화를 자주 낸다
- 불면증으로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 각 관절통증, 특히 목, 허리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 온 몸이 빠근하고, 살이 찌는 것 같다
-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다
- 학생의 경우 학습능력이 떨어진다
- 당뇨 초기증상으로 치료를 하고 있다



오전 7:00~8:20, 10:30~11:50  
오후 6:00~7:20, 7:30~8:50

국선도 대연수련원 ☎ 612-9393

(대연5동 기아자동차 옆)

### 2009 Winter English Camp 2009 겨울방학 초등/중등 영어집중 연수

전원 원어민선생님과 함께하는 3주간의 신나는 영어캠프!  
현지 캠프보다 더 알찬 프로그램과 우수한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는  
국립 부경대의 Winter English Camp에 참가하세요!

부경대 캠프는 아래의 네 가지 학습목표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①Language Development 언어발달
- ②Knowledge Development 지식발달
- ③Development of Creativity 창조성발달
- ④Improvement of Learning Behaviour 학습태도향상

◆ 연수기간: 2010. 1. 11(월)~1. 29(금) 3주과정

◆ 모집기간: 2009. 11. 16(월)~선착순 마감

◆ 문의사항: 629-6852(황지영, 정혜준)/http://ps.pkn.ac.kr

※ 자세한 캠프일정과 시간표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문의 하세요.

1) 초등반(1학년~6학년 8개반 모집)

구 분	학급수	수업시간	연수비	비 고
초등반 (초등1년~6년)	8개 학급 (2반반 정원18명)	09:00~13:00	480,000원	주 5일 (3주과정)

2) 중등 원어민 특목입시캠프(초등5학년~중3학년 3개반 모집)

구 분	수업내용	수업시간	연수비	비 고
기초 파문데이션 과정	-원어민과의 회화수업을 접해보지 않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초 말하기 듣기 집중연수 과정 -한국인 선생님의 중학기본문법과 어휘를 완전공략하여 중등영어실력 강화	09:00~12:00	420,000원	주 5일 (3주과정)
특목고 실전반	-독해와 청해 영어기본학습과 영작문, 토론의 영어특별학습을 병행하는 중등 영어고급과정, 원어민 담임제 실시, 토론 에세이, 영어인턴십 과정 포함.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외국어교육부

FOREIGN LANGUAGE CENTER, PUKYONG NATIONAL UNIVERSITY



개관행사  
학생 80,000 → 50,000  
일반 90,000 → 60,000

<요가교실>

월:25,000원  
수련시간  
10:00~11:00(월,수,금)  
문의:010.8200.0715

위치:지계골역 2번출구앞

<수련시간>  
검도  
14:30~15:20 16:00~16:50  
17:30~18:20 19:00~19:50  
20:30~22:00  
14:00~16:00(토요일)

<검도를 배우시다>  
-호구대여 실시  
-검도복 배양으로 학업성적이 향상되고 매사에 자신감이 생긴다  
-초급반 검격이 적극적이고  
-중급반 검격이 신중하고  
-고급반 검격이 과감한 부역  
-해결능력과 미관관리

교육문의

051)754.2690  
010.3186.5018

필 우당 3층